



대학교수의 사명은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의 자유를 사수하는 데 있다



옥한석
강원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한국은 1997년 말 금융 위기 이후 지식기반경제로의 변신을 꾀하고 벤처기업이 이러한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수많은 벤처기업은 그 주된 업종이 정보처리 관련 지식집약적인 산업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며, 대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식기반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수·대학원생의 벤처 창업 지원, 대학생의 벤처 동아리 지원, 대학과 기업의 인력 교류,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 활성화, 대학원생의 기업인턴제도 및 대학의 기업 인력 재훈련제도, 대학 및 테크노파크의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이 중심이 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시장정보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기술 및 경영 자문을 위한 전문 컨설팅 조직이 구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발전과 기술 혁신이 거대한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이 작았지만, 오늘날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소수의 소규모적인 모험기업이 생동적인 산업 발전을 조성하는 데 공헌하게 되고 대학이 이에 적합하다고 모두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모험적인 사업성이 쉽게 발견될 수 있는데, 사업성이 확실치 않아도 곧바로 벤처를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오늘날 대학들이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직접적인 창업 활동에 뛰어드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말해 대학과 기업 간에 인력이 활발히 교류되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학원생의 기업인턴제도 및 대학의 기업 인력 재훈련제도, 대학 및 테크노파크의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지원 등 교수들의 창의성을 기업과 연계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직접 창업 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바람직한가?

모험자본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창업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배경으로 실용주의적 학풍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대학이 사회와 유리될 수 없는 현실에서 실용주의 학풍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문제는 이론보다는 산물을 중시하는 이러한 학풍이 모험자본의 유치로 이어지게 되는 데 있다. 모험자본이란 투자 기업의 성공에 참여 지분의 가치 상승에 따른 막대한 자본 이득을 주된 투자 목표로 삼기 때문에,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모험기업의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본 참여를 통한 출자로 창업 실패 위험을 창업가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적절한 경영관리, 자금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금융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모험자본도 하나의 엄연한 자본이며 공동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구 활동에 간섭을 하게 되며,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언제든지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모험자본을 유치하여 교수들이 직접 창업 활동을 하게 되는 행위는 오늘날 대학의 존폐에 악영향을 끼치는 해악이 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참여하며 모험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첨단 기술산업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개발은 원천적인 기술을 요구하므로 교수의 연구 열의와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의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모험 자본과 유착하게 되면 오히려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개발의 정보를 많이 가진 교수가 투자자에 비하여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험자본은 개발자의 입장에서 운영상 개인적인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벤처기업의 실패는 물론 인생의 실패가 아니며 새로운 벤처기업이 수없이 탄생하고 기존의 기업이 실패하여 문을 닫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지식이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교수는 기업가가 아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 집단이므로 교수들은 경영 자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공학이나 경영과학 전공자들이 경영에 합류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대학교수들의 창업 활동은 그 고유한 영역이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모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는 바로 학생들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다.

대학의 수익 사업을 위해 교수들이 앞장서야 하는가?

모험자본에 의한 도덕적 해이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학 당국이 자신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들을 벤처기업의 창업 활동으로 내모는 데 있다. 과거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벤처기업을 차리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익사업과 벤처 지원이라는 핑 먹고 알 먹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이들 대학 벤처는 학교 살림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대학들이 벌여 온 수익 사업은 부동산 임대, 병원 운영, 컴퓨터 강좌 등 소극적인 사업이 대부분이었는데, 대학과 기업체가 일부씩 투자하여 회사를 창립하거나 전액 투자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이다. 모험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대표이사직을 맡은 교수가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환경, 에너지, 생명 공학 등 유망한 기업에 대하여 주식, 전환사채 인수, 약정투자, 자금 대여 등을 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학의 교수는 대학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수 본래의 사명을 기피하게 되는 셈이다.

원래 대학교수의 사명은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의 자유를 사수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어느 철학자가 대학의 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시대에도 대학은 불변의 진리 탐구와 역사적 연구에 종사하는 동시에 항상 이 시대와 사회적 현실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사수하고 진리는 진리로써 구명하고 주장하며 거짓은 거짓이라고 물리쳐야 된다. 진리가 최후의 승리자이다.” 이러한 본분에 비취 본다면 학문의 자유를 사수하고 진리를 구명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대학교수들이 창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창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를

포기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심약자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 적지 않은 교수들이 진리 탐구와 학문의 자유를 사수하지 않고 상아탑 밖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는 것으로 외부인의 눈에 비치고 있다.

대학도 민주 시민 사회의 형성에 한 몫을 해야 하고, 경쟁성과 효율, 업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시켜야 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교수 개인의 양적, 질적인 업적을 쌓아야 한다고 보지만, 창업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이론의 탐구보다는 특정 사안의 이해 당사자로서 도덕적 해이와 대학 재정 문제 해결사로 전략하게 된다. 우리 교수들은 민주화와 자본화의 흐름 속에서도 학문의 자유를 사수하고 진리를 구명하려는 강철같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교수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자유가 오히려 창업 활동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한**

목한식

서울대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강원대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교수로 한국 사진지리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세계지리 읽기」, 「향촌의 문화와 사회 변동」, 「한국의 화전농업에 대한 연구」 외 다수가 있다.